특 집

동아시아 세계의 '知'의 지형도 : 유교적 '교육' 체계론과 근대적 '실천지'* **

한예원***

〈차 례〉

들어가며
1. 유교적 교육·교화의 체계
  1) 유교적 교육·교화론의 모델 : <대학>
  2) 유교적 가정교육 : 인성교육
  3) 유교적 사회교육 : 공공교육
  4) 유교적 교육·교화의 내용과 단계
2. 동아시아 세계의 '知'의 지형도
  1) '실천지'의 형성과 내용 - 초학교재를 중심으로
  2) 중국 근대의 '실천지' :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중심으로
나오며

【국문초록】

소고는 동아시아 세계의 '學'의 전통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유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13년 11월 8일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회 영호남 4개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적 교육체계론(교육-교화)과 학습 단계론을 재구성해서 동아시아적 가치를 재평가 재해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유교교육이 지향하는 '知'의 형태를 '實踐知'로 설정하고, 초학교재를 통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전통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적, 도덕적, 인격적 개선과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敎化는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식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대학>의 三綱領과 八條目은 유교적 교육체계론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유교교육의 목표는 유교적 인격의 완성과 유교적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근대지' '과학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동양의 전통적 '지'에 대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동양적 '지'의 특성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실천지'이며, 나아가 '지'의 총합·결합체로서 유기적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것은 유교교육의 최종적 목표인 천인합일과 관련이 있다. 즉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체득하고, 그것을 개인의 수신 절목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소고는 유교적 '몸교육'이며,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지 않고 인식하였던 유교적 세계관의 구현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교육, 교화, 유교 교육내용, 유교 교육체계, 실천지, 몸교육

들어가며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전통시대의 동아시아 세계

에 과연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교재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낸다.[1] 사실 현재 우리의 학문 풍토에서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의 '學'의 전통과 '知'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극히 한정된 정보 밖에 접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동아시아 세계 = 한자 문화권 = 봉건적 유교교육'이라는 부정적 이해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더욱이 현재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교육열의 과열화 현상을 숭문주의적 유교문화의 잔재라고 평가절하 하는 경향도 비일비재 하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단선적이며 부정적인 견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문화, 특히 '학'의 전통과 '지'의 형태를 고찰하고, 그 도그마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동아시아 유교교육의 교육체계론(교육-교화)과 학습 단계론을 재구성하고, 거기서 산출되는 '지'의 형태를 가지고 동아시아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전통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유교적 교육·교화의 체계

'교육'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敎〕기르는〔育〕모든 행동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피교육자는 인식과 태도 및 행위에

1) 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을 근대교육의 시작으로 본다. 갑오교육개혁에 따라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학부가 신설되었으며, 1895년에는 초등교육 기관인 소학교와 소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가 생겼다. 중국의 근대교육 시작은 아편전쟁 이후 同治 元年(1862) 京師同文館이 설치되어 번역사 양성이 시작되던 시기로 보고 있고,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明治 5年(1872) 學制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개선의 노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한 상호 영향관계를 우리는 교육활동이라고 한다. 교육은 교육자의 지식, 인격, 품성, 교육환경, 나아가 교육자의 의식적 의도와 무의식적 의도 전체가 관여하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활동이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서 개인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을 전통적 유교교육의 체계에 적용한다면 '敎育'과 '敎化'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대응 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교육과 교화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교육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지적, 도덕적, 인격적 개선과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식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교육자의 규모에 따라 '교육'과 '교화'로 구분하였지만, 실제로는 '교육'과 '교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사회적 교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교화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목표라는 차원에서는 개인교육과 사회교화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개인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사회전체의 지적, 도덕적 성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인이 구성하는 사회의 사회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와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그 구성원들에게 제시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사회교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조건이 된다. 사회교화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 공동체의 이상을 공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이 필수불가결하다.

1) 유교적 교육 · 교화론의 모델 : <대학>

유교는 긴 시간 축적된 지식의 보고인 '경전'을 교육용 교재로 삼는다. 12세기 주희는 예기의 한 편에 지나지 않았던 <대학>을 독립하여 <四書>로 재편성 하였다. <대학>은 전통사회 교육의 원리와 단계를 제시하는 교육 이론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교육론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의 총론격인 삼강령과 팔조목은 유교적 교육 · 교화론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학>의 틀은, 전통 유교사회에서의 교육 · 교화의 여러 국면을 살피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현대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해 유효한 관점 및 방법을 제공해 준다.

유교는 漢代에 와서 국정이념으로 자리잡았다.[2] 이후 유교권력은 국정운영을 위하여 항상 교육과 교화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그것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의논이 쏟아져 나왔다. 유교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문서는 바로 <예기>의 <대학>이다. <대학>에는 교육과 교화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체계가 정리되어 있다. 더욱이 송대에 내려오면 유교적 이념을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재정립하려는 목적에서 <대학>을 <예기>에서 독립시켜, 그들 권력 사상 활동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것은 <대학>이 교육과 교화를 위한 가장 유용하면서도 적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은 유교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적 틀에서 그치지 않고, 제왕교육의 틀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3] 이렇게 <대학>은 전통시대 유교적 교육 · 교화론의 핵심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

2) 이용주, 「유교 '국교화'에 관한 의문 - '獨尊'과 '國敎'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서 -」, 『양명학』 31, 한국양명학회, 2012 참조.

3) 眞西山이 편집 저술한 『大學衍義』는 제왕이 정치를 하는 순서나 학문하는 근본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조선의 제왕교육에 활용한 것이 이율곡의 『聖學輯要』이다.

<대학>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삼강령과 팔조목은 유교적 교육체계를 최소한으로 진술한 핵심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강령의 "明明德, 親民(新民), 至於至善"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강령이며 유교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 즉 구체적 프로세스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8조목이다. 팔조목 중 전반부의 格物~正心의 4조목은, 그 다음에 오는 '修身'에 포함되는 기초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대학>의 교육체계는 삼강령의 기반 위에,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齊家-治國-平天下'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총강령 - 개인적 실천 분야인 '修己' - 사회적 실천분야인 '治人'의 순으로 나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는 일방통행적인 단선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호 쌍방통행하거나 세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4)]

2) 유교적 가정교육 : 인성교육

격물치지에서 시작하여 성의정심을 거쳐 수신에 이르는 기초 단계를 '수신'의 단계라고 규정한다면, '수신' 단계의 교육목표는 사회와 세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교육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적, 정서적으로 인격의 기본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지적, 정서적인 최소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단계 이후의 교육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유교 교육론에서 '수신' 단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4) <대학>의 8조목이 순차적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용옥의 『대학 · 학기 한글역주』(통나무, 2011, p. 207)도 참고할 수 있다.

수신교육 다음에는 사회와 개인을 이어주는 중간 환절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유교 교육론에서 가정교육은 크게 '齊家' 혹은 '治家'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유교 교육론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유교적 공동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공동체 자체가 가족과 국가의 일체성을 전제하는 '宗法社會'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법사회에서는 국가 내지 사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므로, 국가는 확대된 가족이다. 즉 家族擬制的 政治的 想像力에 입각한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 사회의 교육체계에서 가정교육이 중요시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전통시대 유교적 사회에서 논리적으로는 개인이 가족에 앞서는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이 가장 근본적 사회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적 인격 가치보다는 가정의 가치와 존립 및 안녕을 우선시하는 가족중심적 사유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가부장사회'를 야기하는 전근대적 낡은 유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정의 조화와 화목, 평화가 가장 토대가 되는 절실한 덕목으로 지켜진 것이 동양적 사유의 특성이기도 하였다. 가정 없이 개인의 건강한 인격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교 사상에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유의 근거이다. 개인적 차원의 수신 교육에서 시작된 기초적 인격 교육은 가정교육 차원의 제가 교육에서 완성되고, 제가 차원의 교육목표 안에 수신의 중요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바꾸어 말하면, 유교 교육론의 근간은 바로 이 수신과 제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가정과 국가를 일체로 여기는 宗法社會에 있어서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3) 유교적 사회교육 : 공공교육

유교 교육론의 특징은 가정교육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개인의 인격교육이 사회가 바라는 인격형성에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 가정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지성과 정서적 교육이 사회적 공동체의 인격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정교육이 유교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것은 아니다. 유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대학>의 사회교육 차원인 '치국'과 '평천하'의 교육이다. 지역 공동체 전체, 천하 전체의 사회교육, 곧 공공교육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의 확대가 국가라고 사고하는 것이 유교이지만, 가족과 국가 사이에는 사회라는 중간단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교육과 가정교육의 단계를 벗어나서, 공동체 사회의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에게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사회 교육, 공공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유교 교육론에서 사회교육, 공공교육은 <대학>의 '치국' 교육에 해당한다. 치국교육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치자'를 육성하는 교육이고, 하나는 '치자'가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공공교육이다. 즉 통치계층을 육성하는 지도자 교육과, 지도자가 공동체에게 공동체 사회의 가치관과 목표를 내면화시키는 활동이다. 즉 '치국' 교육은 상층 엘리트층을 위한 통치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자 및 통치 엘리트의 의지와 의도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의 '치국' 교육은 오히려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 공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치국교육에는 제왕교육을 비롯하여, 통치 지도층 즉 관료나 목민관에 대한 교육,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師道교육이 그 안에 포함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유교적 신념체계를 전파하여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대중교육, 공공교육까지도 그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유교적 교육체계 안에서 치국교육의 영역의 범위를 이해하였다면, 치국 이후의 교육 활동을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사회교육'은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사회와 국가를 재구축하는 큰 교육활동이다.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과 기초 지식교육에서 시작하여 생업을 획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사회교육은 가정교육의 바탕 위에 사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교육,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교육, 이념교육을 포괄한다. 국가가 실시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공공교육과 이념교육은, 그 구성원의 개인적 가치 실현을 적극 진작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유교적 사회교육, 즉 전통시대의 유교적 교화가, 구성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백성을 일방적 지배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순치의 과정이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살만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즉 교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유교적 교육 · 교화의 내용과 단계

전통 사회에서의 교육적 이념과 교육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과 교화의 상보적인 작용을 살펴보았다. 전통사회는 오늘날처럼 사회분화가 극심하게 진행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교육, 인성교육, 지식교육, 직업교육이 엄격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인격교육의 내용면에서만 보더라도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유교적 교육체계의 단계로 인정한다면, '소학-

대학’으로 연결되는 단계적 과정론을 통하여 <대학>에 보이는 유교적 교육체계론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 교육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분의 관점이 시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널리 응용되어 왔던 것은, 교육 대상의 연령 및 지적 수준을 기준에 둔 구분으로, 소학(어린이) 교육과 대학(성인) 교육이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지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시작은 <대학>의 교육체계 단계 중 ‘수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격물-치지-정심-성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이 경우 ‘수신’의 단계에서 중시하였던 교육은, 기초 지식의 습득을 통한 인격형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 확립을 위한 인성 교육이다

그리고 다시 소학 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학교육은 다시 식자 교육과 기초 지식 교육, 정서교육, 인격의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적 덕목 교육과 예절 교육, 초보적인 사상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동몽서(동몽선습, 격몽요결), 수신서(가훈, 여사서), 기초 사상서(삼자경, 백가성) 등이 그런 소학 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재로서 편찬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 단계의 대학(성인) 교육은 소학 교육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고도의 사상 내용을 담은 고전 및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교육,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거 교육, 그리고 고도의 정서적 감수성을 발양하고 표현하는 문학 교육(시작법, 글짓기)과 예술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소학-대학 교육은 ‘수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제가교육’에까지 연장되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소학 교육과 대학 교육의 결과 완성된 인격의 도야를 이루기 위한 위정자 교육, 목민 교육, 제왕 교육, 즉 넓은 의미에서의 군자 교육이 그 뒤를 이어서 실시되었다. 그런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유교적 인격과 유교적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그런 이상적 이념은 내성외왕이라든가, 천인합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이 두 단계의 교육은 치국, 평천하 교육과 일정 정도 대응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아시아 세계의 '知'의 지형도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고대되는 시대이다. 그 전환은 근대적 '과학지'가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위기감의 결과로서 촉발된 것이다. 문명전환 시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식틀은 서구식 '근대지' 즉 '科學知'가 아닌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지'의 형태가 필요하다. '과학지'의 대명사격인 뉴턴식 '知'의 형태는 중세의 비현상세계를 제거하고 현상세계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상세계조차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르러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미시세계, 초미시세계, 거시세계, 초거시세계 등으로 확대 되면서 뉴턴식의 '지'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뉴턴식의 '지'로는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지식을 수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인식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의 형태가 모색되었다.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 즉 '근대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 바로 동양적 '知'이다.

이 경우 동양적 '지'를 '실천지'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지'는 인간의 삶에 관한 '지'이다.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지'의 총합·결합체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인식할 경우, '과학지'에서는 신체 각 부분을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신체의 장기조차도 모두 세밀하게 분리하여 각 장기별로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천지'의 경우는 다르다. 각 부위별 인식은 물론이고,

그 위에 각 부위를 다시 유기체적 연결 관계 속에서 인식하려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실천지'의 형태이다. 즉 유기체적 사유를 전제로 하고, 유기체적 사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체적 사유에 바탕을 둔 '실천지'의 형성 배경에는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 세계의 독특한 '학'의 전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실천지'의 형성과 내용 - 초학교재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핀 유교교육의 체계와 내용은 동아시아 세계의 '학'의 전통을 구성하는 주요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한자라는 공용문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공용문자 사용은 秦의 통일이후 실시한 '書同文'[5] 정책이 그 단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동문' 정책 이전에는 중국 내부조차도 지역별로 자형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기에도 곤란이 많았다. 그러나 '서동문' 정책에 의해 한자는 중국 내부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漢代 이후에는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소통 및 '知'의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동아시아 세계가 공용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소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자는 언어를 개념화하고 객관화시킨다. 문자는 '지'를 형성하고 축적하며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축적된 '지'를 전승하기 위하여 교육용 교재가 편찬되었다.[6] 따라서 우리는 현존하는 한문 교육용 교재를 통하여 동아시아 세계의 '지'의 형태를 고찰하고 해석하여, 오늘날 우리가 모색하는 '근대지'의

---

5) 『사기』「진시황본기」와 『설문해자』「서문」에 의하면 진시황제는 도량형과 수레바퀴의 폭 등을 통일함과 동시에 李斯의 건의로 '書同文'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6) 습자용 교과서로 李斯의 『倉詰篇』, 趙高의 『애력편』, 호무경의 『박학편』 등의 있었다고 하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 조정은 고대서적의 각종 문자의 식별과 문자의 訓詁를 정리하기 위하여 문자 쓰는 법, 독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가 바로 許愼의 <說文解字>이다.[7] 이러한 한나라의 학술장려 정책은 경전의 고증과 해석의 기초가 되었고, 이러한 성과는 그 후 2천년에 걸쳐서 중국 사회의 교육을 규범화하고 정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광대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는 동일한 문자, 즉 한자로 소통하는 지식의 지형도를 형성하였다. 15세기 이후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로 언어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자로 소통하는 현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8] 이것은 공용의 한자 표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여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9]

이러한 문자학에 관한 연구는 청나라 때에는 언어와 문자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하는 淸代 小學으로 부활되었고, 그 바탕 위에 민국시대 초기의 장병린(章炳麟, 1869-1936)은 경학을 연구하면서 언어문자학 방면에 큰 성과를 올리고,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文始>라는 저술에서는 한자의 어원을 독특하게 제시하여 457조에 걸친 語群 계통을 정리하였다. 이 한자 어원에 관한 장병린의 현란한 설명은 제자 유사배(劉師培, 1884~1919)를 비롯하

---

7) 후한의 許愼이 지은『설문해자』는 최초의 자서인 동시에 중요한 식자교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허신은 세 가지 한자 기원설을 제시하였는데, 복희의 '팔괘'설, 신농씨의 '결승'설, 그리고 창힐의 '書契'설이 그것이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한자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신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형은 진의 '서동문' 정책으로 배척당하고, 篆書와 隸書가 공용문체로 사용되게 되었다.

8) 武田雅哉, 서은숙 역,『창힐의 향연』, 이산, 2004, pp. 65-88 참조.

9) 진나라 통치가 단명하게 되자 '서동문자' 정책은 시행되기 어려웠었다. 이때 허신이 설문해자>를 편찬하여 글자체의 혼란을 수습하게 되었다.

여 일본의 도도아키야스(藤堂明保, 1915~1985)의 어원설로 계승되었다.[10] 물론 장병린의 소박한 어원설은 기본적으로 갑골학의 성과를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박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자의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자형학적 체계를 베이스에 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병린이 활동한 淸末民國初는 그야말로 중국이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위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장병린은 옛 중국의 유습을 벗어나 새로운 중국으로의 방향전환에서 서구의 새로운 학문 못지않게 전통학문의 연구와 계승의 필요성에 자각하였던 것이다.

유교교육은 실천에 그 목표가 있었다. 때문에 실천에 옮길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였다. 그 때 특히 중시되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그것을 '人倫'이라 말하고, '禮'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五倫'이란 것도 유교교육의 토대가 되는 실천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중심의 교육내용은 전통시대에만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 전통교육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서방의 각종 근대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을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어떻게 서학과 중학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서학 중 무엇을 배우고, 중학 중에서는 무엇을 버리고 취할 것인가? 근대 중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교육이슈가 되었던 것들 이다. 太平天國 시기, 지도자들은 과감히 유학교육을 폐지하였지만, 식자교육용 교재로는 전통시대의 초학교재인 <三字經>을 권장하였다. <삼자경>은 그 이후 태평천국 난을 진압한 양무파의 양무교육에서도 애용되었다. 양무파들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서 보이는 이런 모순점을 '中學爲體, 西學爲用'이란 슬로건으로 나타내었다.[11] '중체서용'의 교육사상은

10) 중화민국 초기 유사배는 북경대학 교수가 되어 중국학에 관한 많은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그 중 문자학 방면에는『중국문학교과서』를 남겼다. 藤堂明保는 <한자어원사전>(동경, 學燈社, 1965)을 남겼다.

이후 강유위(康有爲, 1858~1927), 양계초(梁啓越, 1873~1929)의 유신 교육 시기를 거쳐 5.4운동 시기의 장병린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었다. 그 때마다 <삼자경>은 식자교육을 위한 초학교재로 명맥을 유지하였고, 현대의 중국교육에서도 컨셉을 바꾸어 아동용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2]

특히 장병린의 경우는 1928년에 <삼자경>의 重訂본을 출판하였는데, 당시 대학생들이 周公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중국의 전통학문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장병린은 "중국 전통의 학문을 안내하는 교재로 <삼자경>만큼 좋은 교재가 없다"[13]고 한다. "삼자경은 사물의 이름에서 시작하여 經, 史, 諸子 등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이끄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그 분류가 서로 섞이지 않았다"[14]고 설명한다. <삼자경>은 어린 학생들이 사물의 이름을 학습하고, 나아가 중국고전을 학습하는 기본교재인 것이다.[15] "먼저 부모에게는 효도, 형제에게는 우애를 실천하고, 다음에 견문을 넓혀 지식을 학습한다. 숫자의 변화를 명백히 인식하고 아울러 옛 고전의 문장을 연찬하여 자신을 수양한다."[16]

---

11) 구자억, 『중국교육사』, 도서출판 책사랑, 1999, pp. 211-215 참조.

12) 한 예로 2011년 북경 만권출판공사에서 출판한 <소학생판사고> 계열의 책이 있다. 이 시리즈에는 『논어』『맹자』『시경』『사기』『삼자경』『백가성』『천자문』『제자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문과 현대어번역 그리고 소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삽화와 관련 읽을거리 등이 제시되어있다.

13) 전게서 : "若所以詔小子者, 則今之教科書, 固弗如三字經遠甚也."

14) 장병린, 「重訂三字經題辭」: "其書先擧方名事類, 次及經, 史, 諸子, 所以啓導蒙稚者略備. 觀其分別部居, 不相雜廁."

15) 사실 『삼자경』은 중요 유교경전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저자와 제작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宋나라의 王應麟(1223~1296), 宋末의 區適子, 元末明初의 黎貞이라는 설이 있다. 송나라의 왕응린이라는 설이 통상적이다. 본문 내용은 後人이 차츰 증보한 것이 많은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장병린의 重訂本이다.

16) 전게서. "首孝弟, 次見聞. 知某數, 識某文" 其次才是增廣見聞學習知識, 明

<삼자경>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정서안정과 도덕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숫자와 사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적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실천은 유교의 실천덕목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몸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17] <삼자경>은 <소학>과 마찬가지로 어린 학습자에게 '숫자' 교육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법으로는 경전에 나오는 수 관련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다.[18] 숫자적 분류체계를 통하여 人事와 物質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그 개념들을 사유와 행동의 토대로 삼게 구성하였다.

이어서 <삼자경>은 중국의 '傳統知'를 학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19] 경전 독서의 순서와 역사상의 주요사항을 선택하여 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20] 이런 역사적 전거부분의 예시는 뒷날 <삼자경>의 중정본이 계속 편찬되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정본의 편찬은 결국 현재 교재를 학습하는 아동에게 현재까지 이르는 통시적 안목을 형성시키고자 한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교경전에서 시작하여 제자백가를 골고루 접하고, 역사서를 공부하게 하였는데, '전통지'에 대한 체계적 지식은 물론이고, 그것을 통하여 올바른 사고를 영위하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마지막에는 앞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제적 모범

白數字的變化, 並研讀古聖先賢的文章, 來修養自己.

17) 전게서. "人之初, 性本善, 性相近, 習相遠. 苟不教, 性乃遷, 教之道, 貴以專. … 弟於長 宜先知"

18) 전게서. "一而十, 十而百, 百而千, 千而萬. 三才者, 天地人. 三光者,日月星. … 此十義, 人所同."

19) 전게서. "凡訓蒙, 須講究, 詳訓詁, 明句讀. 爲學者, 必有初 小學終, 至四書. … 文中子, 及老莊."

20) 전게서. "經子通, 讀諸史, 考世系, 知終始. 自羲農, 至黃帝, 號三皇, 居上世. … 載治亂, 知興衰."

사례를 역사상 성공한 인물들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학문을 권장하였다.[21]

<삼자경>을 비롯한 초학교재는 유교교육 체계의 기초학습단계에서 사용한다. 인성 함양과 지식 확장에 목적을 두고,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해와 우주이해, 그리고 그것을 경전과 역사서를 통하여 고찰하고 사유하며,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훈육과정을 위한 교재이다. 특히 '三才' '三光' '四時의 운행은 끝이 없음' '사방은 중앙에 호응함四方應乎中' '오행은 수를 근본으로 함五行本乎數'과 같은 개념은 피교육자에게 우주이해를 촉구하게 된다. '삼재'와 '삼광'으로 '천문'을 이해하고, 다시 四時의 순환과 무한함을 통하여 인간세계의 길흉과 제도를 학습하고, 五行의 질서를 통하여 五常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우주의 기원과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하였다. 오행을 역동적이며 우주 간에 상호 작용하는 힘으로서 이해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연현상과 인간행위를 연결하여 사유하게 된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의 변화와 전망을 예지할 수 있게 된다.

<삼자경>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널리 초학교재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초학교재로는 역시 <천자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편찬된 초학용 식자교본 중에서 <천자문>은 거의 유일하게 한중일 삼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폭넓게 사용 되었다.[22] <천자문>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대

---

21) 전게서. "讀史者, 考實錄, 通古今, 若親目. 口而誦, 心而惟. 朝於斯, 夕於斯. … 戒之哉, 宜勉力."

22) 『천자문』은 梁 武帝가 王羲之의 서체 중 1천개의 서로 다른 글자를 선택하여 周興嗣(470?~521)로 하여금 次韻하여 4言의 詩句로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천자문은 識字用 敎材가 아닌 習字用 書藝敎材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천자문』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 「'한자문화'의

우리의 분과학문적 체계와 달리 우주, 자연, 인문, 사회, 역사, 윤리 등을 함께 배우게 된다.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융합학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천자문> 시작은 다음과 같다. “하늘의 색은 검고 땅의 색은 황색이며, 공간과 시간은 광대하고 끝이 없다.(天地玄黃, 宇宙洪荒)”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천자문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설문해자>나 <淮南子>, <周易>, <孝經>, <禮記>, <太玄經> 등에 나오는 ‘천지’는 ‘玄’이나 ‘宇宙’와 함께 사용된 용례가 많이 나온다.[23] 따라서 ‘천지’는 ‘우주’ 또는 인식할 수 없는 무한세계를 의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해와 달의 변화(日月盈昃), 별자리(辰宿列張), 기온의 변화(寒來暑往), 사계절과 농사(秋收冬藏), 달력의 완성(閏餘成歲), 음양의 기를 조율함(律呂調陽), 구름과 비의 형성(雲騰致雨), 이슬과 서리의 형성(露結爲霜)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천문에 관한 지적수준을 갖추게 하였다. 같은 형식으로 地理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천문과 지리는 오늘날의 우주론과 물질을 주축으로 하는 자연과학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거대담론인 우주론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환경으로 그 폭을 좁혀오고 있다. 이어서 생명체인 인간이 이룩한 문화, 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자’ ‘의복’ ‘禪讓’ ‘정치’ ‘교육’ ‘인륜’ ‘도덕’ ‘수양’에 관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천자문>의 내용은 오늘날 주목하고 있는 물질/생명의 융합학문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리버럴 아츠’의 우주, 인간(생명), 물질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거시 담론에서 시작하여 미시 담론으로 추이가 옮겨가면서 학습자의 지식은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조직화 되고, 유기적 세계관

지식형성과 지식실천 : 전통의 이해와 계승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한자한문교육』 28, 2012) 참조.

23) 小川環樹, ‘本田章義, 『千字文』, 岩波書店, 2007, pp. 17-20.

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천자문>은 一釋一音의 체제로 되어있고, 인용된 고사는 중국의 역사고사 위주이기 때문에, 조선의 어린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천자문>을 대체할 교재가 필요했고, 한자를 한글로 설명하는 <訓蒙字會>를 최세진(崔世珍, 1468~1542)이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또 조선후기에는 實字 중심의 類別學習 방법을 제시한 <兒學篇>이 丁若鏞에 의해 고안되었다.

<훈몽자회>는 상중하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天文/地理/花品/草卉/樹木/果實/禾穀/蔬菜/禽鳥/獸畜/鱗介/昆蟲/身體/天倫/儒學/書式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천문/지리는 우주론의 영역이고, 화품~신체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세계의 영역이다. 이어서 중권은 人類/宮宅/官衙/器皿/食饌/服飾/舟船/車輿/鞍具/軍裝/彩色/布帛/金寶/音樂/疾病/喪葬으로 구성되어있다. 상권의 천륜天倫에서 하권의 喪葬까지는 인류의 문화, 문명의 모습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각 부문을 류별화하여 교재로 만든 이유는 <천자문>의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최세진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24] 사실 천자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연, 사회, 역사, 수신, 양성, 인륜도덕, 음식기거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교육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훈몽자회>나 <천자문>을 식자용 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주와 물질과 생명을 한권의 교재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문리융합의 교재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과거시험이 없었던 일본에서도 이 <천자문>은 근대교육 실시 전까지 데라고야(寺子屋)에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기초교육

24) 최세진, 『훈몽자회』, 「훈몽자회인」: 臣竊見世之敎童幼學書之家, 必先千字, 次及類合然後, 始讀諸書矣.千字, 梁朝散騎常侍周興嗣所撰也. 摘取故事, 排比爲文則善矣. 其在童稚之習, 僅得學字而已. 安能識察故事屬文之義乎?

용 교재로는 <천자문> 이외에 <삼자경>과 <百家姓> 그리고 <弟子規>가 많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實語教>와 <童子教>, <庭訓往來> 등이 초학교재로 사용되었다.[25]

<실어교>는 헤이안平安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明治 초기에 걸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어린 아동도 낭독하기 쉬운 오언시의 대구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어교>의 작자는 미상이고, 중세 시기에도 상당히 보급되었지만, 근세에 들어와 <동자교> 등과 합본의 형태로 출판되어서 데라고야(寺子屋) 등의 초학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26] 내용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지'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에 힘써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재질과 지혜이므로 독서에 힘써야 하고, 나아가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라고 한다. 이러한 <실어교>는 근대에 들어와서 도덕교육과 교과서 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는 <학문의 권유(學問のすゝめ)>에서 <실어교>의 다음 같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실어교>에서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앎이 없고, 앎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人不學無智, 無智爲愚人). 따라서 賢人과 愚人의 차이는 배움과 배우지 않음에 연유하는 것이다." 후쿠자와는 <실어교>를 대중적 기초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실어교>가 강조하는 '학문권장'이 바로 후쿠자와가 추구하는 문명세계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서구 근대학문 수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장병린이 <삼자경>을 중시하였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5) 市川眞文, 「江戸後半期の読み方指導における機能分担について」, 『国語科教育』 30, 1983, p. 60

26) 酒川憲二, 『実語教・童子教-研究と影印』, 三省堂, 1999. 斎藤孝, 『童子教』, 致知出版社, 2013.
斎藤孝, 『実語教』, 致知出版社, 2013.

<실어교>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학문'과 '지식'의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설명하는데 할애되어 있다. '사람이면서 앎이 없는 자는 목석과 다를 바 없다(人而無智者, 不異於木石)', '사람이면서 부모에 대해 효심이 없는 자는 축생과 다를 바 없다(人而無孝者, 不異於畜生)'는 것이 기본노선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바로 '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유교적 인성관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과 축생의 차이는 그 '지'를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게 된다. 특히 학문하는 방법을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즉 잊어버리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이런 비유는 상당히 일본적 학문풍토의 특색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는 식자단계에서부터 과거시험을 목표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문 그 자체가 일종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학문은 '직업'이 아닌 부수적 취미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글공부 자체가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다채로운 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에 비하여 일본은 '실천지'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초학교재로는 이 <실어교>와 함께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童子教>가 있다. <동자교>는 가마쿠라鎌倉 시대부터 메이지 중반까지 사용된 역사가 오랜 교재이다. 물론 에도江戸 시대에는 데라고야寺子屋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동자교>의 현존하는 最古本은 1377년의 필사본이고, 저자는 미상이지만, 헤이안平安 전기의 天台宗 계열 승려인 안넨(安然, 841?~915?)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다. 내용은 초학자들이 몸으로 실천할 기본적 예절과 불교적, 유교적 소양에 관한 가르침이 많다. <동자교>도 5언의 한시 형태이다. 이것은 전통시대의 주요 학습방법이 암송이었기 때문에 즐겨 사용된 형태라고 추측된다.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피교육자에게

공간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귀인이 앞에 있으면, 눈에 띄게 서있어서는 안 된다.(富貴人前居, 顯露不得立) 도로에서 만나면 무릎을 끊고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시키는 일이 있으면 공손하게 받든다.(遇道路跪過, 有召事敬承)” 이것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아동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동지침으로, ‘辟除’라고도 불리는 예절이다. 마치 구체적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배운 ‘예’는 사회질서로 수용되어 실제상황에서는 적절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했다. 초학교재는 識字가 주요 교육목표이지만, 단순히 도구과목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사회질서로서의 ‘예’의 내용을 체득하게 된다. 현대의 어학학습 교재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학습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드러나는 교재편성이다. <동자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의 특색은 대인관계에서 취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舌禍’를 막기 위한 근신은 처세술로도 중요하다.[27] 일본 전통사회는 조선이나 중국에 비교하여 公私의 영역이 엄격히 구별되는 체제였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가족, 향촌, 藩 등 공공영역의 질서유지가 교육의 우선 목표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자교>의 중간부분은 학문을 장려하고, 나아가 스승에게 지켜야할 예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소학>의 ‘입교’와 ‘명륜’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념적 내용에 대한 모범이 될 실제 예시를 역사상의 전거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다.

마지막 후반부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가 승려였을 가능성이 높다.[28] <동자교>는 자체의 편찬 동기를

---

27) 『동자교』, “口是禍之門, 舌是禍之根”

28) 梶井一暁, 「近世僧侶の庶民教育へのかかわり : 伊予国の手習塾を中心に(<特集>宗教の教育と伝)」, 『宗教研究』 85-2, 日本宗教学会, 2011 참조.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전반부(上)에서는 어린 학습자에게 불도를 구하도록 인도하고, 중반부(中)에서는 四恩(인간이 받는 네 가지 은혜, 즉 천지(삼보)·국왕·부모·중생)에 보답하게하고, 후반부(下)에서는 널리 六道(六界, 중생이 선악의 인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르는 세계)에 이르는 것이다." <동자교>에서 전하는 불교적 가르침의 주요 메시지는 인생의 '공허함'이다. 따라서 불도를 이루기 위하여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綾羅錦繡는 모두 冥途의 노잣돈이 되지 못하고(綾羅錦繡者, 全非冥途貯), 황금주옥은 단지 한세상의 財宝일 따름이네(黃金珠玉者, 只一世財宝), 부귀영화는 더욱이 불도의 도움이 되지 못하네(榮花榮耀者, 更非仏道資)." 세상에서 쌓은 재물은 허망한 것이지만, 그것을 보시하는데 사용하면 공덕을 쌓아 주변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할 재물이 없지만(若人貧窮身, 可布施無財), 다른 사람의 보시를 보게 되면, 기뻐 귀의하는(隨喜) 마음이 생기게 된다(見他布施時, 可生隨喜心),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한 사람에게 베풀면, 공덕은 마치 큰 바다처럼 된다네(悲心施一人, 功德如大海)." 현세적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게 되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유교적 교육체계와도 연계된다. 바로 치국, 평천하의 사회교화 단계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개인에게 제시하여, 개인이 그것을 정서적으로 수용하여 복종하면서 실천하게 한다. 개인의 선행은 사회공공의 보다 좋은 삶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나아가 천하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는 몸교육을 통하여 유기적 세계관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초학교재인 <실어교>와 <동자교>는 아동들이 실제생활에서 실천할 예절 및 불교적 관점에서의 처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교재들은 아동 개인의 도덕적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체제 유지를 위한 '실천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재는 <천자문>이나 <훈몽자회>등에서 보이는 우주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 훈몽교육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초학교재로 명치유신기에 까지 폭넓게 사용된 것은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이 지은 <初學知要>가 있다.[29] 3권 중 상권은 제목이 '爲學'이다. 따라서 학문하는 방법과 학문의 목표 등이 제시되었다. 중권의 제목은 '修身'이다. 유교적 수양의 요목이 제시되고 있다. 하권의 제목은 '接物', '處事', '警戒'로 구분되어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유교 經傳子史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여 편록하고, 가이바라가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실어교>나 <동자교>와는 달리 본격적인 유교입문서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성현의 가르침을 배울 것인가? 몸을 닦고,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를 주요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즉 '예'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공자는 일찍이 '好學'을 제시하였고, 공자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호학'은 변함없이 동아시아 세계의 지식형성의 주요요목이 되었다. '호학'의 결과 '온고지신'하게 되면 유교적 교육내용의 궁극적 목표인 '성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학'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는 전통적 동양의 '예'만이 아니라 서구의 정치, 사회, 법문화 등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절에서 중국이 전통적 지식과 새로 유입되는 서구의 지식을 어떻게 융합하여왔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

29) 貝原益軒은 지금의 후쿠오카(福岡)에서 태어난 유학자이며 본초학자, 교육자이다. 저서로는 <養生訓> <女大學> <大和本草> 등이 있다. 松田元信, 『貝原益軒「初學知要」: 儒教入門書』, 東京: 明德出版社, 2012.

2) 중국 근대의 '실천지' :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중심으로

중국은 '웨스턴 임펙트'라고 불리는 두 번의 아편전쟁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교육은 정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이다. 특히 유교적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에 근거하는 중국과 조선은 과거제도에 입각하여 選士와 養士가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관학은 과거시험의 부속품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만주족이 집권한 淸末은 쓸모없는 팔고문으로 관리를 선발하면서 학교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1897년 孫中山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글에서 교사들이 가짜 학생이 되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 일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런 교사들은 대리시험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개탄하여 마지않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인사라면 누구나 교육개혁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통교육의 교육내용을 개혁하고, 여성에게도 교육기회를 주는 평등교육을 제창하고, 대중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문자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중 전통교육과 관련하여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양무파의 '양무교육'과 유신파의 유신교육이다. 양무파는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대관료, 지주, 군벌이 중심이 된 그룹이다. 조정의 奕訢, 文祥, 지방의 曾國藩, 左宗棠, 李鴻章, 張之洞이 속한다. 양무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조의 봉건통치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自强'과 '自救'의 슬로건을 내걸고, 유학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언어,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양무파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양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당을 설립하고, 나아가 서방세계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서양과학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그밖에도 서양총포의 구매, 기기의 사용, 광산경영, 공장설립, 외국군관의 고용, 서양식 군대 훈련 등을 주장하였는데,

학문은 자신들의 유학의 道가 서구의 것보다 우수하지만, 기술면의 船堅炮利의 器는 서방보다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양의 발달된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어 해독이 가능한 양무인재를 양성할 것을 교육의 목표로 내걸었다.

특히 양무파 후기의 대표자인 장지동은 "중국은 재물이 빈약한 것이 아니고 인재가 빈약하다."고 하면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양무교육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30] 이때 양무교육의 도그마로 제시된 것이 '중체서용'이다.

'중체서용'론은 1861년 馮桂芬이 「采西學議」에서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는 '강상명교'를 원본으로 삼고 부국의 방법을 輔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鄭觀應은 "中學은 근본이요 西學은 末이다. 主는 中學이요, 輔는 西學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中學爲體, 西學爲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沈壽康이 '匡時策'이라는 문장에서부터이다. 양무파들은 '옛 학문을 본체로 삼고 신학문을 작용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과거의 中學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학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장지동이 <勸學篇>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구학은 사서, 오경, 중국사, 政書, 지도 등이고, 신학은 西政, 西藝, 서양사를 가르킨다. 구학을 道라고 칭하고, 서학을 器라고도 칭하였다.

장지동이 지은 <권학편>은 당시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학교의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였다고 한다.[31] 장지동은 일본의 학문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 점은 서양을 중시하는 다른 양무파들과 관점을 달리하였다. 이홍장을 비롯한 양무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학문을 수용하게 하였으

30) 양무파가 세운 학교로는 奕訢이 세운 '京師同文館', '天文算學館'이 있고, 이홍장이 세운 '廣方言館', 장지동이 세운 '湖北自强學堂' 등이 대표적이다.
31) 王中江, 「福澤諭吉和張之洞的『勸學篇』」, 『百年中國』 14, 1992.

나, 장지동은 일본의 학문축적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것이 서양에 파견하는 것보다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일본으로 유학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정세와 풍속이 비슷하여 쉽게 모방하여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은 반인데 공은 배가 된다"[32]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오늘날의 시점에도 부합하는 말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서양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일본어 쪽이 훨씬 수월하다. 또 독서의 경우도 한자가 토대가 되는 일본서적이라면 거의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일본의 명치유신의 경험을 유학생들이 배워오게 되면 양무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점은 오늘날의 동아시아 세계에도 적용 가능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 안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서구의 것에 비교하여 노력면이나 능률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지동은 서학이 범람하면서 유학이 위험하게 된 사태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위기감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거울삼아야 한다는 일본관을 피력하였다.[33]

하지만 양무교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 즉 하드웨어의 개혁 없이 외국어와 과학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만 보충하여서 사회개혁과 부강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장지동은 유가사상을 토대로 삼으면서 서학을 수용하는 절충방안을 제출하였지만, 결국 경계를 허물지 못하는 중간자적인 개혁에서 벗어나질 못하였다. 제도의 개혁 없이 내용은 쉽게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장지동이 역설한 '중체서용'의 교육사상은 전통 유학교육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전통교육이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을 통

32) 장지동, 『권학편』, 游學, 상해서점출판사, 2002, p. 39. : 至游學之國, 西洋不如東洋 … 中東情勢風俗相近, 易仿行, 事反功倍, 無過于此.

33) 전게서, 「守約」, pp. 24-25.

한 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 장지동 교육사상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양무교육을 비판하고 나온 유신운동시기의 교육이다. 장지동의 교육목표는 몸은 전통사대부인데 겉옷만 서양언어와 과학기술로 갈아입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양무인재를 양계초는 비판하고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유신변법교육으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양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양무교육과 유신교육의 중국교육에서의 의의에 관하여는 장場을 달리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나오며

근대적 학문론, 근대적 세계관의 기본 전제는 정신과 물질의 분할, 자연과 인간의 분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전제는 기계적-수학적 환원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인간의 삶과 인간 세상은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봉착하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할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밀하게 분할해도 대상의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 이상 근대적 세계관의 전제들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이미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과학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근대적 지식의 방법과 전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 지형도를 모색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당면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아시아 세계의 '학'의 전통과 '지'의 형태를 고찰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의 지형도를 찾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학'의 전통을 유교의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을 통하여 재분석하였다. <대학>이라는 경서가 보여주는 개인교육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유교적 교육체계, 그리고 <소학>에

서 <대학>으로 진행되는 유교적 교육내용은 동아시아 세계의 '학'의 전통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육체계나 교육내용은 서로 분리 단절된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만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의 공공의 목표는 가정교육의 교육내용이 되고 그것은 다시 개개인의 수양과 실천 속에 용해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교육목표는 다시 교육내용으로 재편성되어 피교육자의 몸(마음)교육과 지식교육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초학교재를 통하여 논증할 수 있다.

21세기라는 전환기는 문헌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지'의 수준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전통지'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탄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지'를 형성하였던 분류체계를 현대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학문 분과주의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문리융합적 관점으로 '전통지'의 교육내용을 해석하면서 실천을 전제로 하는 지식내용을 '실천지'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천지'의 개념으로 유교교육의 의미를 사유하게 되면, 현대의 인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了)

참고문헌

『大學衍義』, 『聖學輯要』, 『史記』, 『說文解字』,
『삼자경』, 『백가성』, 『천자문』, 『제자규』, 『훈몽자회』, 『동자교』, 『실어교』

구자억, 『중국교육사』, 도서출판책사랑, 1999.

松田元信,『貝原益軒「初學知要」:儒教入門書』, 東京, 明德出版社, 2012.
武田雅哉 저/서은숙 역,『창힐의 향연』, 이산, 2004,
藤堂明保,『한자어원사전』, 동경, 學燈社, 1965.
小川環樹・本田章義, <千字文>, 岩波書店, 2007(14쇄)
장지동,『勸學篇』, 游學, 상해서점출판사, 2002.

김용옥,『대학・학기 한글역주』 통나무, 2011.
이용주,「유교 '국교화'에 관한 의문 - '獨尊'과 '國教'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서 -」,『양명학』31, 한국양명학회, 2012.
王中江,「福澤諭吉和張之洞的『勸學篇』」,『百年中國』14, 1992.
한예원,「'한자문화'의 지식형성과 지식실천 : 전통의 이해와 계승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한자한문교육』28, 2012.
梶井一暁,「近世僧侶の庶民教育へのかかわり : 伊子国の手習塾を中心に(<特輯>宗教の教育と伝承)」,『宗教研究』85-2, 日本宗教学会, 2011.
市川眞文,「江戸後半期の読み方指導における機能分担について」,『国語科教育』30, 1983, p. 60
斎藤孝,『童子教』, 致知出版社, 2013.
斎藤孝,『実語教』, 致知出版社, 2013.
酒川憲二,『実語教・童子教-研究と影印』, 三省堂, 1999. 斎藤孝,『童子教』, 致知出版社, 2013.

东亚世界的知識地圖：儒教的"教育"体系论与近代的"实践论"

韩 睿 媛

"小考"作爲傳統時代東亞圈對"學"的傳統考察研究的方法，被認爲是對儒教的教育体系論（教育-教化）和教育階段論的再构成，東亞价值的再評价、再分析的契机。并且，儒教教育指向的"知"被定爲"實踐知"，通過儿童教材而保護了那种局面。通過這樣的工作，可能成爲我們發現傳統教育的新价值和新的可能性的契机。

儒教教育的終极性目標是通過對社會整体，或者是全天下的人進行社會教育、公共教育，也就是治國教育，這是一个超越个人教育和家庭教育的更高階段，制定共同体的价值觀和目標，對其成員進行內心上的教育。《大學》中的"治國"教育，不應簡單地認爲是爲了培養政治統治精英而進行的教育，而是應該從其广泛的含義出發，它是市民教育，是公共教育。"治國"以后的教育活動，可以通過《大學》中的"教化"進行概括。"教化"是立足于儒教理念，引領社會整体的同時，促進社會和國家再构筑的教育活動。探索儒教教化的根本精神的同時，積极的發現其自身所具有的肯定性的价值，肯定性的指向，這需要通過純技能性的社會教育再進行解析。

停止對"近代知"的反省，新的突破口就會引起极大的關心，這就是東洋的"知"。東洋的"知"可以称之爲"實踐知"。"實踐知"既是和人們生活相關的"知"，又是通過綜合、結合恢夏有机体思維的"知"。由于漢字是東亞世界的共用文字，因此形成東亞世界"學"的傳統的儒教教育体系是可能的。儒教教育的最終目標是成爲"天人合一"的圣人。爲了成爲圣人，需要体會"礼"，修身并且去實踐。這体現了儒教的身体教育，以及精神和身体不分离的儒教世界觀。

儒教的教育是在實踐中實現目標。在人際關系、實踐中所說的人倫和礼組成了儒教教育体系的基础教育內容。傳統時代的小學教材是个人的人性教育和知識教育。隨着在實踐中的運用，身体教育也就有机地連接起來了。

經書《大學》展現了儒教教育体系中的个人教育、家庭教育以及社會教育，在《小學》的基础上，通過《大學》進行的儒教教育內容是東亞世界

“學”的傳統形成的根基。這种教育体系或教育内容彼此間幷不是分离斷絶，而是維持一种相互補充的有机性關系。爲了形成一个理想的社會，社會的公共目標成爲家庭教育的内容，幷融入个人修養的養成過程中。通過儿童教材我們可以論証上述教育目標；通過再次改編教育内容，受教育者的身体(心)教育和知識教育正變得可視化。爲了擺脫現代學問分科主義的局限性，利用正在試圖广泛傳播的文理融合的觀点，不但可以解釋“傳統知”的教育内容，還可以利用“實踐知”的概念從總体上說明實踐知識的内容。

關鍵詞(Key words): 教育(education), 教化(edification), 儒教的教育内容(confucian contents), 儒教的教育體系(confucian education system), 實踐知(practical knowledge), 身體教育(demeanor education)

한예원
소속: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주소: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번지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전화번호: 010-3239-1490
전자우편: yaewonh@chosun.ac.kr

이 논문은 2013년 12월 01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